

오피니언

월/요/광/장

이재민



아직은 젊으면서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면 결국 '마포블랙'이 된다. 얼마 전 KTX좌석에 비치된 책자에서 읽은 글이다. 화백, 블랙, 마포블랙, 음식점 메뉴가 아니다. 퇴직한 백수들을 처지에 따라 나누는 등급이란단.

당신은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있나요

마련하여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이웃들로부터 존경받고 스스로 행복을 느낀다면 그것이 바로 최상의 노후가 아닐까 싶다. 많은 사람이 연말이 되면 한 해 동안 미처 실행하지 못한 일들을 아쉬워한다. 그리고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지고 내년을 설계해 보지만, 또 다음해 이맘때가 되면 실행하지 못한 일 때문에 괴로워한다. 매년 이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아쉬워하고 괴로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한국 기업사에 있어서 전설적인 인물이다.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막노동으로 시작해 마침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낸 입지

전적인 분이다.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레 겁을 먹는 직원들을 보고 '해 봤나?', '해보거나 했어?'라며 다그친다. 질책이 라기보다는 '그래도 해 봐', '어떻게든 해 보자', '뭘든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 도전 하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직원들에게 심어주려는 나름대로의 발상이랄 수 있다. 정복자 알렉산더대왕이 동방원정 길에 프리기아를 지나가다 어느 신전 기둥에 매듭으로 매어놓은 마차 한 대를 발견했다. 그것은 프리기아 고르디아스왕이 매

어 놓은 것으로 고르디아의 매듭이라고 불려 왔다. 옛날부터 그 매듭을 푸는 사람이 동방의 왕이 된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다.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알렉산더대왕은 머뭇거리지 않고 단칼에 고르디아 매듭을 잘라 버렸다. 그 후 알렉산더 대왕은 예언대로 동방의 왕이 되었다. 두 이야기 다 지행일치의 극치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기회가 찾아온다 한들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것도 이룰 수 없음을 시사해 준다. 그렇다고 뒤편 무작정 실행해 옮겨서는 안 된다. '찰스 린드버그'는 대서양을 무작정으로 단독 비행한 최초의 인물이다. 그는

타고 갈 비행기의 성능과 대서양 기후 변화는 물론 본인의 능력 등 모든 것을 사전에 치밀하게 분석 검토했다. 그리고는 그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대서양을 향해 날아갔다. 이 또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 도전 시기를 단 하루라도 미루지 않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기성공 전략이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자, 이제 기성세대들이여! 진정 당신의 노후를 준비하고 싶다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래 설계도를 오늘 바로 꺼내들고 단 한 장의 벽돌부터 쌓기 시작하자. 비록 며칠 차이이지만 새해부터 하겠다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힘차게 뛰어라 한다. 그리고 사랑스런 우리 아들 딸들에게 '성공 비법'이니 '살아가는 지혜'니 하는 장황한 이야기길 그만두고, 무엇이든지 생각만 하지 말고 단 한가지부터라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행동해 옮기도록 체근해야 한다. 먼 훗날 ' 그때 그 당시 내가 그것을 실행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라며 후회마구 하는 일이 없도록 말이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은가. <순천대학교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 설

고질화된 토착비리 근절대책은 없는가

올해 광주·전남지역에서 토착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수사기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질화된 토착비리가 우리 지역에서 고질화됐음을 알 수 있다. 광주지검은 26일 올해 토착비리 사범 14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37명을 구속 기소하고 1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올해 단속된 토착비리는 유형도 다양하다. 뇌물과 리베이트 수수는 물론 공직자금 관련비, 민생침해 사범, 기업경영 관련 비리 등 지역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토착비리는 지역사회를 썩먹는 암적 존재와 같다. 특히 공직사회의 비리는 이대로 지방자치를 실시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광주시의 한 전직 구청장은 승진 대가로 5천만 원의 뇌물을 챙기는가 하면 전남지역의 어느 부군수는 공사 편의 청탁과 함께 아파트 구입비 대납 약속을 받기도 했다. 또한 토착비리를 철저히 할 경찰관

부가 청사신속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돈을 받았는가 하면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뒷돈을 챙긴 경찰도 있다.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다. 문제는 토착비리가 고질병이 되다시피한 점이다. "일부 수사과정에서는 성실한 다수마저 '다들 하나씩이 정도는 괜찮다'거나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인식할 만큼 위법행위에 둔감해져 있었으나"는 검찰간부의 말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토착 비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갈수록 훨씬 교묘해지고 치밀해졌다. 따라서 잔잔이 몇 명만 처벌하고 넘어가는 소극적인 수사로 대처해서는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어렵다. 보다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다.

토착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지역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 사정당국이 강한 의지를 갖고 토착비리가 지역사회에서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야 하는 이유다.

강진 청자 '바가지'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검찰이 최근 강진군의 고려청자 매입 가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이는 강진청자박물관이 각각 10억 원을 주고 고려청자 2점을 구입한 것과 관련, 한 감정위원이 소장자로부터 금품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정황이 있다며 감사원이 수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이 고려청자 구매과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정위원이 청자 소장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고 의도적으로 감정가를 높게 책정한 혐의가 있다고 하니 이제 검찰의 실제 규명만 남은 셈이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문화재청에 대한 국경감사에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이 "청자의 실제 감정가가 1억 원에 못 미치는데도 감정위원과 소장자가 서로 짜고 감정가를 10억 원으로 부풀린 의혹이 있다"고 문제 제기한 것 역시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국경감사 당시 고려청자 '바

가지' 구입 의혹에 대해 석연치 않은 의문과 함께 철저한 규명을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구입한 청자의 경우 3점의 감정평가위원이 감정가를 똑같이 10억 원에 맞춘 것은 1인 이상 감정위원이 매진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뒤 그 가격 이하로 구매하도록 규정한 강진군 조례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어떻게 협의 가격 그대로 결정됐는지 그 배경에 의문이 가는 것이다. 또한 미국 소더비 경매 낙찰자가 1만4천 달러로, 지난해 7월 구입한 청자 가격이 5배나 된 것도 납득되지 않는다. 검찰 수사 결과, 불법으로 판명한다면 열세 남비는 물론이고 공공기관과 공공박물관의 문화재 구매에 범죠행위가 개입된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검찰은 감정위원 위촉 경위, 감정가격 책정 과정 등을 철저히 조사해 위법 여부를 가려야 한다. 사실로 드러난다면 구입 자금을 회수하고 관련자들을 엄벌 조치 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김지현



연말이 되니 신입 변호사로서 '고군분투'하였던 한 해를 되돌아보게 된다. 다양한 사건들을 접하면서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제가 체득한 평범하고도 위대한 진리는 의뢰인과 대화 속에 사건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가 되어 처음으로 교도소 집견을 하게 된 사건은 의뢰인이 보훈사기와 관련하여 사기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것으로, 의뢰인은 정범과 함께 무죄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 노력하고, 접견을 할 때에는 구속되어 있어 사정을 하소연할 곳이 자신의 변호인밖에 없는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로 인해 거의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의뢰인을 만나러 가기 전에 기록을 매번 한 번씩 훑어보는 과정에서 전에 볼 때는 간과하였던 점들이 보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효과적 인 증인신문 준비를 할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의뢰인이 사건과 무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 놓으면 적절치 차

의뢰인과 대화속에 길이 있다

처음 광주교도소의 접견실을 들어설 때의 떨림과 낯붉은 의뢰인을 마주하고 대화를 시작하면서 저만치 날아가고, 의뢰인의 말을 경청하면서 수사 기록과 의뢰인의 주장과의 모순점 등을 지적하며 완전히 몰입하여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때 마침 손목시계도 차고 가지 아니하였고, 시계가 걸려 있던 벽을 등지고 앉아 있어서 의뢰인과 얼마 동안 대화를 한 것이지 전혀 알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교도관이 오더니 "5시까지에는 끝내 주셔야 한다"고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야 시간을 확인하였더니 의뢰인과 3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급하게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서 자신의 요령 없음을 자책하기도 하였으나, 의뢰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들어 주어서 정말 고맙다고 거듭하여 감사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서 변호사의 첫째 역할은 뭐니 뭐니 해도 의뢰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란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사사건을 처리할 때는 될 수 있으면 피고인을 자주 만나기 위해

단을 하기도 하지만, 이야기를 못하게 하였을 때 의뢰인들이 보여 주는 아쉬움과 불만이 뒤섞인 표정을 보는 것은 여전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별다른 증거는 없고 피고인과 적대적인 증인의 증언만이 유력한 증거가 되는 경우 증인신문은 매우 중요하면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서 기록을 검토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하면서 막막한 기분이 들 때, 해결책은 역시 의뢰인을 접견하고 이야기를 들어 보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적대적인 증인의 탄핵에 성공하여 증인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판단을 이끌어 냈을 때의 가슴 뿌듯함은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듯합니다. 변호사로서의 첫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시 증인신문입니다. 다음날 증인신문이 있는 재판이 있으면 지금도 긴장하여 기록을 여러 번 검토하면서 의도치 않은 대답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고민하는데, 이러한 긴장감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내내 없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광주지방변호사회 변호사>

기고

조현상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지난해를 되돌아보고 다가올 새해를 설계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5·18민주화운동 30주년이었습니 다. 나이 삼십이면 한 가정을 이루고 비로소 제대로 된 뜻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 삼십을 이립(而立)이라고 합니다. 5·18민주화운동도 그런 나이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뜻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처음의 뜻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정초에 단체 임원에게 문자가 왔습니 다. 국립 5·18민주묘지에 단체 임원

고 규명만 하고 있습니다. 몇 번째 단체 통합을 약속했던 5·18단체 역시 내부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한 채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뀐 지 얼마나 되었다고 사법적 청산이 이루어진 5·18의 명에가 이처럼 참담하게 내몰리고 있는지 반드시 돌아볼 일입니다. 자라나는 청소년 세대들에게 5·18은 국사교과서의 몇 줄에 불과한 먼 옛날의 이야기가 되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5·18묘지 참배객의 수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유공자와

엮어지는 기억! 초심 잃은 5·18단체!

들이 모여 올해는 반드시 단체를 통합해 공법단체를 등록하기로 결의하는 신년 참배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여 전에도 문자가 왔습니다. 인터넷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한의 사주에 의한 것이었다고 왜곡을 일삼고 있는 세력들이 제기한 재판에 5·18단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며 이 재판에 참석할 회원들에게 보내는 문자였습니다. 이 두 번의 문자는 어쩌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5·18민주화운동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5·18단체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정신을 옹호해 지켜려는 노력을 뒷받침으로 물리면서 우리 사회의 보수, 우익세력들에 의해 난도질당하며 5·18민주화운동의 명성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탈북자 모임이 앞장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를 비롯한 국가기관들은 손 놓

그 가족들은 허울에 불과한 명예만 붙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소리없이 무명을 달랠때까지 있지만 유공자들의 삶을 돌아보는 세정(世情)은 그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해야 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5·18단체를 이끌고 있는 분들입니다.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난 지금도 단체를 공법단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회원들의 복지를 위해,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옹호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를 위해, 수차례 거듭된 약속을 이제 지켜야 할 때입니다. 5·18유공자로서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실천해야 할 의무가 있을진 데 바로 그것이 5·18단체가 공법단체가 되어 합법성과 도덕성을 갖추는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육포대 경영학과 교수>

미혼모 학습권 보장 위한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우리나라 학생들은 미혼모가 되면 대부분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학교를 자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미혼모 학생들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반해 학교 측에서는 "애를 낳고 학업을 계속할 수 있겠느냐"는 식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한 여학생이 이런 학교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해 미혼모의 학습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내기도 했다. 이제는 청소년의 임신을 당사자의 품행

문제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 최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등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파악해야 한다. 실제 미혼모의 상당수는 성폭력으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을 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는 이런 미혼모들을 위해 대안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미혼모자 시설 입소 기간을 재학기간에 포함하고, 미혼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설립해 학습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정청현·광주시 광산구 원동

無等鼓

크리스마스 이브에 착한 아이들에게 선물을 가져다준다는 산타클로스(Santa Claus)는 이젠 세계 어느 곳에서나 아주 친숙한 이름이 됐다. 이번 성탄절에도 어린이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산타클로스가 진짜 존재하는지, '우는 아이'에게도 선물을 주는지 등이었을 것이다. 인터넷 지식검색에 올라온 질문들이다.

산타클로스는 서기 270년 소아시아지방 항구도시였던 파타라 시에서 태어난 성(聖) 니콜라스(St. Nicholas)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는 게 통설이다. 가톨릭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그의 이름은 라틴어로 삼부수 니콜라우스였고, 아메리카

산타클로스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은 산테클라스크라고 불렀는데 이 발음이 미국어화했다는 것이다. 자비심이 남달랐던 그는 남몰래 많은 선물을 베풀었는데 산타의 전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붉은 모자에 붉은 옷을 입은 채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

은 불과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다. 1931년 미국의 코카 콜라가 홍보전략으로 자사의 상징적 색깔인 붉은 색을 입힌 것이 시초다.

어쨌든 성탄절 시즌만 되면 세계 각지에서 동심이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펼쳐진다. 올해도 미국 각 도시에서는 비밀 산타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100달러짜리 지폐를 나눠

줬고,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는 곳곳의 레이더를 이용해 산타클로스 위치추적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광주·전남에서도 시민단체 회원 수백 명이 '사랑의 몰래 산타'로 변신해 선물을 전달했고, 한 50대 남자는 여수 삼산면사무 산타클로스에 이주한 네덜란드인들은 산테클라스크라고 불렀는데 이 발음이 미국어화했다는 것이다. 자비심이 남달랐던 그는 남몰래 많은 선물을 베풀었는데 산타의 전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산타클로스가 붉은 모자에 붉은 옷을 입은 채 사람들 앞에 등장한 것

얼굴 없는 산타



Table with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numbers, fax numbers, and website details for various departments like circulation, advertising, and subscription.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제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평론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